

한국현대사의 이해

Introduction to the Contemporary History of Korea

6주차. 박정희(1)
2강. 친정치적 행동주의 장교



학습 내용

1. 군인으로서의 박정희는 누구인지?
2. 정치와 무관한 군인인지, 아니면 정치에 개입하려 한 군인인지?



학습 목표

1. 다면적인 박정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학습한다.
2. 군인으로서의 박정희의 삶에 대한 기존의 역사적 평가에 기반을 두어 그를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.



제2강

친정치적 행동주의 장교





생각해 볼 문제



- 군인에 대한 평가 기준이 무엇인가?
- 나는 지금까지 군인으로서의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였는가?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☑ 창군 후 장교단 내부에는 두 갈래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있었음

1 반정치적 행동주의

- ➡ 이종찬 장군
- ➡ 군부의 정치개입 반대
- ➡ 군의 정치개입은 군의 사병화(私兵化), 파벌 형성 조장
- ➡ 때문에 군이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 되고, 정치권도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
- ➡ 4·19혁명 때 군이 엄정중립을 지킨 것은 이종찬 장군의 지도력에 크게 기인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이종찬

- 일본군 공병 장교로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에 참전
- 해방 이후 육군참모총장, 국방부장관, 주이탈리아대사, 국회의원 역임
- 이승만 대통령의 직선제 개헌과 3·15부정선거 당시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✓ 창군 후 장교단 내부에는 두 갈래의 정치적 행동주의가 있었음

2 친정치적 행동주의

- ➔ 박정희 장군
- ➔ 군부의 정치적 개입 지향
- ➔ 부산정치파동 때 군부 소장 층을 대변하면서 친정치적 행동주의의 행태를 보였음
- ➔ 부산정치파동 때 이용문 작전국장, 유원식 15연대장과 장면 부통령을 추대하는 쿠데타 기도, 실패
- ➔ 조봉암 진보당 대통령 후보의 사형집행 이후 1959년 11월 30일 쿠데타 기도, 실패
- ➔ 1960년 3·15부정선거 후에도 같은 해 5월 8일 쿠데타 계획 수립, 4·19혁명으로 계획 시행 중지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조봉암

- 독립 운동가 겸 정치가
- 〈노농총연맹조선총동맹〉의 문화부책
- 코민테른 원동부(遠東部) 조선대표, ML당 조직 활동
- 제헌의원, 초대 농림부장관, 대통령 출마
- 진보당 창당, 위원장이 되어 정당 활동을 하다가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
-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1959년에 처형
- 2011년 1월 20일 대법원에서 간첩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☑ 이종찬의 반정치적 행동주의와 박정희의 친정치적 행동주의는
A. Stepan의 구 직업주의(old professionalism)와 신 직업주의
(new professionalism) 유사

☑ 구 직업주의 장교는;

- ➡ 대외안보(external security) 치중
- ➡ 문민정부 통치의 정당성 수용
정치적 기술과 양립할 수 없는 고도로 전문적이며 특화된 군사 기술 보유
- ➡ 군대의 행동반경을 군대 내로 스스로 제한
- ➡ 군인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사회화 과정 학습
- ➡ 비정치적인 군대와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 수용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문민통제 (civilian control)

- 문민지배 또는 문민우위라고도 함
- 문민에 의한 군의 민주적 통제
- 근대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군사기술의 발달과 함께 군이 점차 전문 집단화하여 정부의 통제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발생
- 이에 대해 군은 정부의 권위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정군(政軍)관계의 규범적 개념이 문민통제
- 문민통제의 실현은;
 - 통상 문민 정치가로 구성된 행정부의 행정
 - 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나 예산의 승인 등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의 입법
 - 사법제도에 의한 사법 등



1] 군 내부의 두 갈래 정치적 행동주의

☑ 신 직업주의 장교는;

- ➡ 대내 안보(internal security) 열중
- ➡ 문민 지배의 정통성에 도전
- ➡ 군사와 정치가 서로 연관된 기술 보유
- ➡ 행동반경의 제한이 없음
- ➡ 정치화된 군인의 길을 가도록 사회화 과정 학습
- ➡ 군부의 정치경영주의에 의거하여 자신의 역할 확대 도모



2] 친정치적 행동주의자 박정희

✓ 박정희의 전역사는;

➔ “다시는 자신과 같은 불행한 군인이 없었으면 좋겠다.”

➔ 박정희를 구 직업주의에 충실한 반정치적 행동주의 장교로 오해하게 함

✓ 부산정치파동 때부터 친정치적 행동주의자였음

✓ 문민정부의 정통성에 도전하려 했던 쿠데타 음모자(coup monger)

✓ 자신의 위치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직업군인으로 한정시키지 않았음

✓ 반대로 신 직업주의의 ‘군사 정치적 경영주의’에 의거하여 군부의 역할을 정치에 개입하는 것까지 포함시킨 군부 역할 확대주의자



2] 친정치적 행동주의자 박정희

☑ 박정희의 생각은;

- ➡ “군사혁명이 법실증주의의 견지에서 볼 때 현재 법 질서에 대한 침범인지 모른다”고 인정
- ➡ 그럼에도 “국가가 파멸에 직면하고, 국민의 주권이 유린되었을 때 일대 수술을 가하겠다”는 발상 하에서 쿠데타 감행
- ➡ 국민의 지지나 제도적인 합법성과 절차와 관계없음
- ➡ 정치권력을 힘에 의해 쟁취될 수 있다는 현실주의적 권력 논리 의거
- ➡ 무력에 의한 권력 찬탈을 정당화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었음



학습 정리

- ? 군인으로서의 박정희는 친정치적 행동주의자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.
- ? 문민정부의 정통성에 도전하려 했던 쿠데타 음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
- ? 군부의 역할을 정치에 개입하는 것까지 생각한 군부 역할 확대주의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

